

‘백제문화 천년의 향기’ 미륵사지서 이어간다...

진신사리 등 국보급 문화재 9600점 전시

“마음은 수경(水鏡) 같아서 법계(法界)를 항상 밝게 비추시고, 몸은 금강(金剛)과 같아서 허공과 같이 불멸(不滅)하시어, 칠세(七世)를 영원토록 다함께 복리(福利)를 받고, 모든 중생들이 다함께 불도(佛道)를 이루게 하소서.”

1400여 년 전 백제 왕후가 익산 미륵사탑을 조성할 때 부처님 사리를 탑안에 봉안하면서 작성한 ‘금제사리봉영기’의 일부이다. 진신사리와 봉영기를 비롯한 1400여 년 전 백제인의 신심(信心)을 고스란히 간직한 성보(聖寶)를 진전하는 지중한 인연이 마련됐다.

문화재청과 전라북도가 지난 11월26일 미륵사지 석탑 복원 착수식을 성대하게 개최한 후 내년 3월30일까지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이란 주제로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서 진행되는 특별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부처님 사리, 금제사리봉영기, 금동제사리의외, 유리사리병, 명동금판 등 무려 9600점의 국보급 문화재의 진품을 발굴 현장에서 진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12월19일 현재 3만1326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만큼 인기가 많다.

진신사리를 비롯한 국보급 문화재가 나온 국보 제11호인 익산 미륵사지석탑은 백제 무왕

당시 조성된 동양 최대규모의 탑이다. 무성한 세월의 흔적에 일부 훼손된 부분을 일제강점기 콘크리트로 복원사업에 보수했다. 이에 문화재청과 전라북도가 2016년 8월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복원공사가 원만히 회향되면 찬란한 백제문화의 향기는 천년 이상의 세월을 또 다시 이어갈 것이다.

지난 2009년 석탑 1층 심주석에서 사리장엄을 비롯한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불교인은 물론 세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1400년 전 정성을 다해 선조들이 석탑에 봉안한 부처님 사리와 각종 문화재가 대량으로 나왔던 것이다. 이번 특별전은 발굴 후 성심성의껏 보존 처리를 마친 국보급 문화재가 선보이는 것이다.

노기환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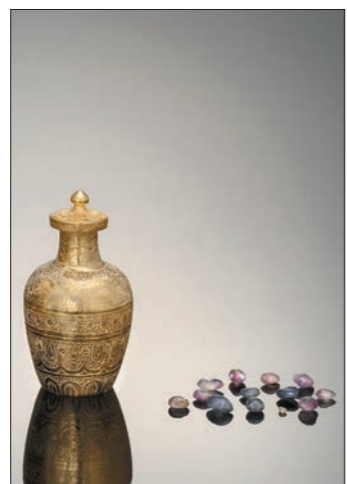
학에서는 “사리장엄은 백제와 신라, 중국, 일본 등 고대 동아시아 문화교류 양상을 새롭게 밝혀주는 매우 귀중한 불교미술품”이라며 “화려하고 우아하면서도 섬세한 백제 미술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평했다.

이번 특별전이 종료되면 부처님 사리는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에 봉안되고, 나머지 유물은 박물관 수장고 등에 보관될 예정이다. 따라서 1400년 만에 세상에 출현한 부처님 사리를 석탑에 봉안하고 나면 언제 또 다시 진전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금산사 기획국장 화평스님은 “1400년 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국가의 통합과 안보를 기원했던 백제인들의 신심(信心)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두 번 다시없는 기회”라면서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찾아와 ‘백제의 향기’와 ‘부처님의 향기’를 직접 느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해오는 기록에 따르면 본래 삼금당(三金堂) 삼탑(三塔) 구조인 익산 미륵사지는 도랑 안에 있는 연못에 미륵산을 비롯한 석탑이 생생하게 비춰 절경을 뽐낸다. 연말연시를 맞아 도반이나 지인들과 함께 부처님 진신사리를 진전하고 발원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도량이다.

익산=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익산 미륵사지 연못은 미륵산을 비롯한 석탑이 생생하게 비춰 절경을 뽐낸다. 위의 작은 사진은 지난 2009년 익산 미륵사지석탑 1층 심주석에서 발견된 금동제사리의외와 사리.



동림스님, 경주캠퍼스에 23억 토지 기부

“불교인재 양성 큰 뜻 동참”

‘후원인 밤’ 30억원 담지
동국대 건학이념 ‘주목’

부산 해림사 회주 동림스님(사진)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23억 원에 이르는 토지를 보시해 감동을 주고 있다. 동림스님은 지난 20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2013 동국대 경주캠퍼스 후원인을 위한 감사의 밤’에 참석해 이계영 총장에게 발전기금으로 23억 원에 이르는 부산 가장 지역의 토지를 기부했다.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한 동림스



님은 “이사장 정연스님과 이계영 경주캠퍼스 총장이 추구하는 불교인재양성의 큰 뜻에 동참하고자 기부하게 됐다”면서 “동국대 학생과 학인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동국대 불교미술학부 청원스님 5000만원, 주식회사 진양유

조선 황경환 대표 4500만원, 통천사 주지 선지스님 2000만원,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장 범안스님 2000만 원 등 경주캠퍼스 발전기금이 담지해 이날 행사에서만 약 30억원의 기금이 모아졌다.

동국대 이사장 정연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인재양성을 위해 소중한 정재를 내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그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내 동국대 경주캠퍼스 건학이념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社告 불교신문 법보시캠페인

어려운 이웃과 포교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냅니다 1구좌 5,000원

불교신문 법보시는 또하나의 도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포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과 포교현장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비록 한 장의 신문이지만 포교사 한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교현장이 열악한 교도소, 군부대, 병원 등 포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에서 불자님들의 자비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공덕 중 으뜸은 법보시이며 자기 자신과 후대를 위한 선업을 쌓는 일입니다.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참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일입니다. 나눔의 기쁨에 많은 동참 당부드립니다.

■ 독자기획사업부 (02)730-4488

■ 문자전용 (010-4157-4406)

최전방에 웃음꽃 선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3일 강원도 화천 최전방 칠성부대를 방문해 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사단본부에서 구홍도 사단장의 안내를 받으며 부대소개를 받고 격려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3연대 군법당 연습사, 칠성전망대를 거쳐 GOP장병들의 생활관을 둘러보았다.

5연대로 자리를 옮긴 총무원장 스님은 장병 200여명이 모인 인성교육 시간에 자신의 군복무 경험을 소개하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어울리며, 함께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절임을 강조했다. 또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동안 부모와 형제들은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드리겠다”고 위로했다.

화천=신재호 기자 air01@bulgyo.com

7일 팔공총림 동화사서 대중사 법계품서식 봉행

대중사 법계품서식이 오는 2014년 1월7일 오전11시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봉행된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스님)는 12월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계품서식은 신년하례법회 직후에 봉행된다. 진제 종정예하는 원로위원인 세민, 정연, 지성, 대원, 성파, 성우스님에게 대중사 법계종과 가사를 수여한다.

한편 이날 법계위원회 회의에서는 법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법계위원장 고산스님은 “중앙총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친 뒤 법계품서식 날짜 선정을 위해 별도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에 대한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행 법계법 4조 ‘법계품서는 법계위원회의 결의로 종정이 행한다’는 조항을 ‘법계품서는 법계위원장이 요청으로 종정이 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중앙총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어현경 기자 eonako@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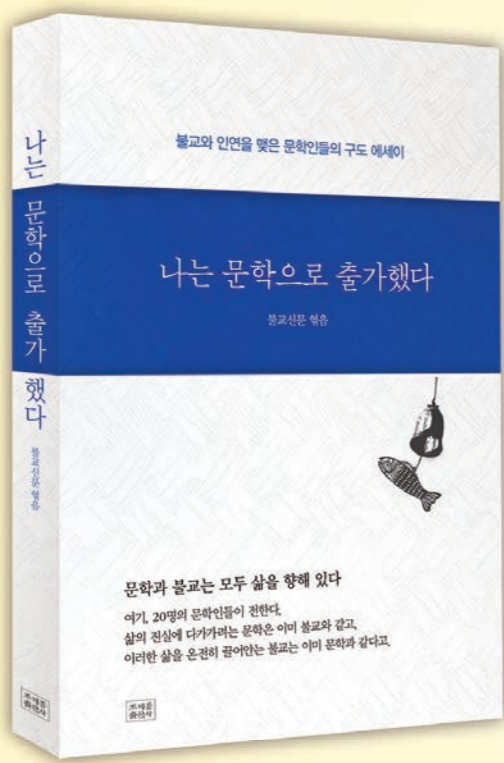
지면안내

2013 불교계 10대 뉴스 5면

송담스님의 ‘할구참선법’ 8~9면



한글 천수경 ‘전문’ 10면



불교와 인연을 맺은 문학인들의 구도 에세이

나는 문학으로 출가했다



문학과 불교는 모두 삶을 향해 있다

여기, 20명의 문학인들이 전한다. 삶의 진실에 다가가려는 문학은 이미 불교와 같고, 이러한 삶을 온전히 끌어안는 불교는 이미 문학과 같다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학인들이 해 줘야 할 일이 많습니 다. 그런 가운데 이밖에 영이 내는 '나는 문학으로 출가했다'는 깊은 숲속에서 맑은 샘물을 찾아내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문인들의 아름다운 문체와 불교의 인물이 살아 숨 쉬는 이 책은 불교를 잘 아는 사람에게도 소중한 책이 될 것입니다. (주)조계종출판사 2013년 12월 26일 발행